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	2021년 6월 2일(수) 총 2매	
담당 부서	인천대공원 사업소	담당자	• 권역공원팀장 박은지 ☎440-5871 • 담당자 최윤정 ☎440-5874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소래습지생태공원 올해 첫 천일염 생산 시작, 채염식 가져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 내륙지역에 남은 최후의 염전터와 갯벌로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간직한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올해 첫 천일염 생산을 알리는 채염식을 가졌다고 밝혔다.

소래습지생태공원은 1930년대 중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970년대 국내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였으나 소금생산이 중단되면서 방치됐던 폐염전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,

현재는 저어새 등 야생조류의 서식지, 염생식물 군락지로 해양생태를 복원하고 전통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.

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“오늘 첫소금 수확을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”라며 “앞으로 2일 이상 맑은 날이 지속되는 여름에는 시민들께서 매일 3시경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염전 체험장에서 소금 생산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” 라고 말했다.

한편 소금생산은 9월까지 이어지며 생산된 천일염은 축감놀이 등 공원 이용 프로그램 이용자재와 불우이웃 돕기 김장재료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16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